갱신 내지 쫑5 2010.5.11 2:11 PM 페이지 52

고트프리트 빌헬름 로허(Gottfried Wilhelm Locher)
| 스위스 베른대학교
| 번역 : 황대우(부산외국어대학교)

루터, 칼빈과 비교한 츠빙글리 신학의 특징적인 면들

1911년 생인 고트프리트 빌헬름 로허(Gottfried Wilhelm Locher)는 1958년부터 1978년까지 스위스 베른(Bern) 대학교 개신교 신학부의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로허는 20세기 최고의 츠빙글리(Zwingli) 연구가이다. 이것은 1966년 가을에 미국의 대학과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다(Gottfried W. Locher, *Zwingli's Thought: New Perspectives,* Leiden: E. J. Brill, 1981, 142-232). 또한 1962년 튜빙겐(Tübingen)에서 출판된 독일어 종교백과사전 *Die Religion in Geschichte und Gegenwart(KGG)* 3판 6권에 "Zwingli II: Theologie"라는 항에 실렸고 스위스 연속간행책자 Zwingliana XII/7/8(1967 1/2), pp. 470ff., 545ff.에도 실렸다. 축소판으로는 "The Shape of Zwingli's Theology, A Comparision with Luther and Calvin"이라는 제목으로 *Pittsburg Perspective,* Vol. VIII/2.(June 1967)에 실렸다. 앞으로 몇차례에 걸쳐 번역 연재될 예정이다.

갱신 내지 쫑5 2010.5.11 2:11 PM 페이지 53

종교개혁의 메시지와 신학

1) 메시지

1537년 슈말칼트 조항 제2부의 유명한 서문에서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여기에 가장 첫째 되고 주요한 조항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다(롬 4장). 그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시다.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달리 행위나 율법이나 공로로 얻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롬 3장). 비록 하늘과 땅이 무너져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이 조항을 없애거나 안일하게 만들 수 없다."

1523년 1월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끈 [67개 조항]에서 훌드리히 츠빙글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2조: 복음의 요약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의 죄 없음을 통해: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3조: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과거에 있던 자들과 현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6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안내자이며 대장이시다."

『기독교 강요』 III권에서 존 칼빈은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것은[=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견고하고 확실한 지식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약속의 진리에 기초하며,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의 가슴에 인 쳐지는 것이다."

종교개혁 메시지의 본질을 몇몇 단어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한 것은 이신칭의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에 집중하던가, 아니면 유일한 구원자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과의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우리는 즉시 세 명의 주요 종교개혁가들 각자를 특징짓는 이러한 인용들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을 구분하는 일을 진행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종교개혁가들을 비교하고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서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의 차이점이 과장되는 위험과 그들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에 더 강조를 두는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여기서 다루게 될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그들의 공통적인 기초의 배경에 역행할 때만 신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체 종교개혁 운동의 공통점은 양심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로 도피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위로이다. 세상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라는 중세의 그림과 대조적인, 죄인의 구세주에 대한 재발견 또한 공통점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점은 로마와 중세 스콜라 철학이 만들어낸 끝없는 종교적, 도덕적 요구들과는 대조적인, 또한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구원의 신비한 길에 대한 다양한 단계들과는 대조적인, '오직 은혜로만' (*sola gratia*)이라는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sola fide*) 의롭게 된다는 은혜 개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특성, 혹은 인간의 어떤 자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협력이 마땅히 '은혜'라고 지칭되어야 하는 것이라 해도, 그런 특성과 협력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순수한 선물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또

한 공히 은혜에 대한 인격적 개념을 가지도 있는데, 이것은 성례를 통해 사람에게 주입된다는 '주입된 은혜'(*gratia infusa*)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회가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공통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계급적 직분과 교리적이고 합법적인 전통을 가진 무오한 구원 기관이라는 개념과 대조적인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의 모든 작품의 공통점은 오직 성경에만 기초한 설교, 즉 '살아 있는 목소리'(*viva vox*)를 일깨우는 것이다. 비록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 하는 한 분,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를 제시하는 증거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께 오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 자신을 그분께 맡기라. 인간 속에서는 어떤 위로도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메시지이다.

2) 신학적 동인들

분명한 것은 이 메시지의 해석이 두 가지 측면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첫째로는 성경 석의에 의한 영향이고 여기는 일치하는 면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종교개혁가들과 그들 교회에 대한 각각의 출발점, 그리고 그들의 다른 경험에 의한 영향이다. 따라서 우리가 종교개혁운동의 동기를 물을 때, 그 대답의 다양성과 결과가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 신학을 소개할 때 특히 독일어로는, 모두 아주 빈번하게 루터의 가르침을 표준 안내서로 받아들이고, 츠빙글리와 칼빈에게서는 일치점과 차이점만 간단히 언급해 왔다. 그 결과로 어떤 경우에는 차이점이 과장 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형식은 비슷하게 되고 내용의 다른 점들을 빠뜨리

는 경우도 있었다. 종교개혁가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동인을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 신학의 심장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견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① 루터

앞에서 언급된 믿음의 의에 대한 루터의 말은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우리가 교황과 악마와 세상에 대항해서 가르치고 살았던 모든 것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 확신해야 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교황과 악마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고,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될 것이다." 루터의 가르침은 교황(즉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의 원리를 부인하는 교회 원리의 대표자로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지닌다)에 대항하여 싸울 뿐 아니라, 의심과 절망에 대항하며, 이성과 죄를 가진 세상의 방식에 대항하며, 악마의 영원한 저주와 악마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밤낮 이러한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내면에 그들의 가장 위험한 세력을 풀어 놓는다. 나의 양심에서, 악마는 율법에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는 잃어버린 자이다." 루터의 메시지는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해 절망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혹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인생을 살고자 모든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대를 깨닫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에는 심리적인 면도 있다. 개신교는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형제 마르틴의 이미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장면에서, 루터는 두려워했는데, 그것이 그가 국가와 교회 앞에 아무 두려움 없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루터는 그의 선택에 대한 두려움,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가에 대한 두려움, 그의 견해의 순수함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죄가 정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모른 채 진정한 복음적인 신앙이 없으며, 어느 면으로든 이러한 공격에 영향 받지 않는 복음적인 신앙은 없다. 공격받는 양심만이 율법에 대항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은혜의 약속을 고수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분노라는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말했듯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지 않는 믿음은 없는데, 이 빛은 말씀과 성례 안에서 설교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 빛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될 때, 종종 제기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자비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루터 경건성의 중요한 동기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질문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심오한 것을 표현한 것일 것이다. 은혜의 약속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믿음에서 일어난다. 사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목표이며,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지속적인 새로운 길이며 절망이나 행위에 대항한다.

② 츠빙글리

훌드리히 츠빙글리도 두려움으로부터 종교개혁가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대면하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이 두려움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츠빙글리는 루터가 그의 인생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갈등들을 몰랐다고 주장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루터의 신앙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투쟁하면서 끝까지 진정한 수도사를 향한 소망이 반영되었지만, 취리히의 종교개혁가는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자신의 성도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열정적인 정치가이자 불같은 민주주의자였다. 선언하는 임무는 예언자적인 것이다. 말씀을 설교할 때는 때를 잘 해석하여 시대에 맞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공공의 삶과 개인의 삶은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은 시대의 부패와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것은 한 편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자들의 일반적이고 두려운 배교이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유혈 전쟁을 통해 자기 파멸로 뛰어드는 것이다. 독립을 위한 전쟁 기간 중 자랑스럽게 성장한, 츠빙글리가 특별히 사랑한 연합체는 탐욕스럽게 돈을 위해 참전함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임박한 형벌은 재앙의 수준이 될 것이다. 『목자』(*The Shepherd,* 1524)에서 이 종교 개혁가는 성직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목자는 제후들이 일으킨 전쟁을 수행하는 방탕한 자를 꾸짖고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교황주의자들,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소위 성직자라고 불리는 무리 전체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15년 동안 가장 크고 가장 강한 나라들을 서로 대항하게 함으로 혼동을 일으켰다. 많은 영혼의 명예, 생명, 그리고 재산이 파괴되어서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이며, 이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그들이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항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관점에서였고, 뒤에 전쟁은 더욱 악화되어, 오늘날에 조차도 평화에 대해 대화할 때, 사람들은 전율한다. 그들이 명심한 것은 파멸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간략히 말해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도 밝게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평화를 누릴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오늘날에 새롭게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허락하신다. 지금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마지막 기회이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거절한다면, 어떤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까? 그것

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열심으로 이 죄 많은 세대에 그의 말씀을 계시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 죄 많은 세대에는 대부분 지배자들 사이에 방탕함이 야기되고, 진정한 경건, 정의, 순결 그리고 충성됨이 파괴되었으며, 부끄러움 없이 너무 많이 돈을 도둑질하며, 폭리를 취하고, 고리 대금과, 돈을 평가 절하하는 일이 생겼다.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처럼 어느 곳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 곳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서 인간적인 교훈의 위선을 제거하자. 따라서 아이들과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침묵을 지키고, 빛을 등경 아래에 감추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유 하도록 돕지 않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하나님의 계명에서 돌아선 자는 자신의 이기주의에 넘겨진다. 복음(종교개혁을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전통에 집착하는 사람의 완고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두 경우 다 영이신 참되신 한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피조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츠빙글리 신학에서 성령론적인 강조의 뿌리가 놓여 있다. 현재로서는 츠빙글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은 단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은혜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굳건히 붙잡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전 영역의 변화를 결심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실제 삶에서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자기 유익' 이며, 종교에서 반대되는 것은 인간적인 가르침과 전통이다. "사람이 자신의 이성으로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옳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이성과 판단이 바로 그 우상이다. 이 이성은 물리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마술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거짓된 빛으로 반짝거리며, 참

되고 옳은 것처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한다. 원숭이가 자신의 새끼를 좋아 하듯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들을 좋아한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루터에게 뿐만 아니라, 츠빙글리에게도, 믿음의 기초와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세워진다는 사실이다. 종종 인용되는 책 『목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믿음과 사랑이 하나인가를 설명한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믿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비롭고 참되며 가장 선한 분으로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그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무나 값비싼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확신시키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③ 칼빈

우리는 초기 종교 개혁가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보았다. 그들은 재발견된 성경에서 샘솟는 살아있는 말씀의 선포를 경험했다. 제2세대 인물인 존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 있는 힘은 종교개혁 운동의 동인 자체가 되었다. 여기에 두려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비록 지옥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경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의 전능하신 실체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제이다. 칼빈이 높이 평가했던 루터가 우리의 구원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칼빈이 루터조차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칼빈에게도 그리스도는 은혜의 계시이며, 따라서 이

는 우리를 위해 믿음이라는 놀라운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 그 자체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태도를 드러냄을 깨달아야 한다. 믿음의 반대는 어떤 형태로는 항상 불순종하는 믿음 없음을 뜻한다.

3) 과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므로 일어난 이러한 종교개혁의 각성의 틀 안에서 취리히 종교개혁가의 개인적인 특징과 그의 사고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였다. 지난 150년간 츠빙글리는 항상(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모두) 비난하기 위해서나 칭찬하기 위해서나 비텐베르그 종교개혁가와 비교되어 묘사되어 왔고 평가되어 왔다. 이것은 결코 올바른 이해를 낳을 수 없다. 게다가 개혁교회에서 그에 대한 기억은 400년 동안 제네바 출신의 스승이자 설립자인 사람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희미해졌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좋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금의 신학이 츠빙글리의 역할을 새롭게 고려해 볼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종교개혁 메시지에 그가 특별히 공헌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한 몫이 될 수 있는지는 츠빙글리 자신을 우리가 알 때만 결정될 수 있는 질문이다. 그의 성만찬 교리는 다른 곳에서가 아닌 그의 신학의 틀 안에서 한 번은 소개되어야 한다.